

2023. 06. 10. 2023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총평

국어 : 이유진 선생님

한줄
총평

어휘력과 문해력 측정에 대한 의지

▶ 전체적 난도와 영역별 출제 경향

이번 지방직 9급 국어 시험은 올해 국가직 9급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독해 영역에서의 유형별 출제 비율은 유사했으나 암기파트(문법규정어휘한자)에서 문법규정보다 한자어 어휘력을 보려는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인사혁신처(암기형 출제를 지양하고 추론형 출제 강화하겠다)의 의도를 반영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휘력을 단순 암기 영역이라 여기기보다는 문해력의 기반이 되는 요소로 여기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해 - 중심내용 찾기나 배열, 내용확인 같은 기본 유형을 골고루 출제하여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만, 추론 유형(19, 20)은 단순히 지문의 문장과 선지의 문장이 일치하는지 마주 대어 보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면 시간 지체가 심하셨을 것입니다. 작문(고쳐쓰기)과 화법(말하기 내용/형식)도 골고루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학 - 수험생들이 두려워하는 고전문문은 비교적 익숙한 시조를 대상으로 형식 개념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고, 산문들도 교과서 필수작이자 기출에 이미 출제되었던 작품들을 출제하였습니다.

예상대로 현대 운문만이 낯선 작품이셨을 수 있으나 주제 파악 및 선지 대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필수작을 대상으로 형식 개념을 찾는 훈련을 꾸준히 하고, 낯선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풀 훈련을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문법규정어휘한자 - 이론 문법 중 통사론의 기초개념인 문장 성분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고, 한글맞춤법 속 혼동어휘를 출제하였습니다. 한자어의 의미,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 한자어의 표기가 골고루 출제되었고 성어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출제된 한자들은 표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답안 결정이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총평

▶ 문항별 출제 유형분석

1	독해(화법)	말하기 방식	11	독해(화법)	말하기 내용
2	독해(비문학)	배열	12	어휘한자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
3	이론문법	통사론 - 문장 성분	13	어문규정	한글맞춤법 속 혼동 어휘
4	어휘한자	한자어의 의미	14	어휘한자	한자어의 표기
5	독해(문학)	고전 운문 형식 이해	15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부정 발문
6	독해(비문학)	주제	16	독해(문학)	고전 산문의 내용+형식 이해
7	독해(작문)	고쳐쓰기	17	독해(비문학)	내용 확인 부정 발문
8	독해(비문학)	빈칸 추론	18	독해(비문학)	내용 확인 긍정 발문
9	독해(문학)	현대 운문 내용 이해	19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부정 발문
10	독해(문학)	현대 산문 형식 이해	20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오답률 상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형에 주목해야 하는 것)
20번 > 언어학 제재 + 비문학 추론

▶ 2024 대비 전략 > 문해력의 기반인 어휘력을 갖추고 비문학 독해 추론 훈련 착실히!



메가 공무원 이유진 교수 2023 지방직 9급 국어 해설

現) 메가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서경대학교 공공인책자원학부 교수

박문각 공무원 국어 대표 교수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영술,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웅익대학교 /

웅진세무대학 출강

기타)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짜기

법률저널 PSAT 언어논리 칼럼 연재

KBS한국어능력시험 유형서 짜기



이유진 우월한 국어



우월한 국어 이유진 카페

문 1. ㉠~㉣의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 주무관: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주무관: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김 주무관: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최 주무관: 설명회에 참여할 청중 분석이 먼저 되어야겠지요.

김 주무관: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면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최 주무관: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김 주무관: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 ① ㉠: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 질문하고 있다.
- ③ ㉢: 자신의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 의문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화법) - 말하기 방식

최 주무관은 '저도 ~ 절감하고 있어요'라며 AI에 대한 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② 김 주무관은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최 주무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직접 질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최 주무관은 김 주무관에게 '그럼 ~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라며 청중 분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묻고 있으므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김 주무관은 최 주무관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에 확신을 얻기 위해 의문문을 쓰고 있다. 따라서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의문문이라 볼 수 없다.

문 2. (가)~(다)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 그에 따르면 뇌의 전두엽은 상상력을 관장하는데,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되어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나)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의 뇌 변화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다)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되어 전반적인 뇌 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실증된 바 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는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뿐 아니라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① (나) - (가) - (다)
- ② (나)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④ (다) - (나) - (가)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배열

지문의 도입부를 통해 '독서를 통한 아이들의 뇌 발달'이 중심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그에 따르면' 책을 읽으면 상상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을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가)의 앞에는 '그'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A교수는 독서 활동 여부에 따른 뇌 변화 연구로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A교수는 (가)의 '그'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가) 앞에 위치해야 한다. → 선지 ③ 탈락

(다) '이처럼'이라는 병렬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접속어 뒤에,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되고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실증된 바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

다. 책을 읽었을 때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은 (가)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다)는 (가) 뒤에 배열됨을 알 수 있다. → 선지 ②, ③, ④ 탈락
 따라서 '(나)-(가)-(다)'의 순서대로 배열해야 한다. (다)는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학교에서 독서를 많이 한 아이가 성적도 좋고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는 내용과 이어진다.

문 3.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지원은 자는 동생을 깨웠다.
- 유선은 도자기를 ㉡ 만들었다.
- 물이 ㉢ 얼음이 되었다.
- ㉣ 어머니, 현지가 언제 이렇게 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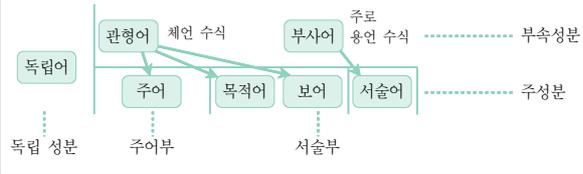
- ① ㉠: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이다.
- ② ㉡: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 ③ ㉢: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이다.
- ④ ㉣: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 독립어이다.

★ 정답: ③ - 이문 문법 - 통사론 - 문장 성분

'물이 ㉢ 얼음이 되었다'의 '얼음이'는 서술어 '되다'가 요구하는 '보어'이다. '얼음이'의 '이'는 주격 조사와 모양이 같지만 보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는 필수 성분으로 주어 외에도 보어가 필요하다.

★ 오답 해설:

- ① '㉠ 지워옴'은 서술어 '깨우다'를 실행하는 주체인 주어이다.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다.
- ② '㉡ 만들었다'는 '…가 …을 만들다'의 구성으로 쓰는 서술어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 어머니'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어이다. 감탄사, 호격 조사가 붙은 명사, 제시어, 대답을 나타내는 말 등이 독립어에 속하는데 제시된 문장에서의 '어머니'는 감탄사이다.



문 4.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서구의 문화를 ㉠ 맹종하는 이들이 많다.
- 안일한 생활에서 ㉡ 탈피하여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
- 회사의 생산성을 ㉢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자.
- 연못 위를 ㉣ 부유하는 연잎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다.

- ① ㉠: 무분별하게 따르는 ② ㉡: 벗어나
- ③ ㉢: 끌어올리기 ④ ㉣: 헤엄치는

★ 정답: ④ - 어휘한자 - 한자어의 의미

제시된 문맥의 '부유(浮遊)하다'는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라는 의미이다. '헤엄치다'는 '사람이나 물고기 따위가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팔다리를 젓거나 지느러미를 움직인다.'라는 뜻이므로, 연잎은 헤엄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이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맹종(盲從)하다'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다.'라는 의미이므로 '무분별하게 따르는'은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이다.
- ② '탈피(脫皮)하다'는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므로 '벗어나'는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이다.
- ③ '제고(提高)하다'는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리다.'의 의미이므로 '끌어올리기'는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이다.

문 5.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 홀너간들 청산(靑山)이야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저 우리 녀여 가노고.
- (나) 청산(靑山)는 옛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데하야 주야(晝夜)에 굶디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 ① (가)는 '청산'과 '녹수'의 대조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고전 운문 형식 이해

(나)에서 '청산과 '유수'는 시각적 심상이다. 청각적 심상은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가)는 변하지 않는 '청산'과 쉽게 변하는 '녹수'를 대조하여, 떠나는 임과 달리 변치 않는 마음을 지니고 살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는 님의 정(情)이(푸른 산은 나의 뜻이요, 푸른 시냇물은 님의 정이니)'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청산은 옛데하야 만고에 프르르며 / 유수는 옛데하야 주야에 굶디 아니노고(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칠 줄을 모르는가.)'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대구법: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
- ④ (가)의 '녹수 | 홀너간들 청산이야 변홀손가(푸른 시냇물은 흘러흘러 가지만 푸른 산은 (녹수처럼) 변하겠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지조를 강조하고 있다. (나)의 '청산은 옛데하야 만고에 프르르며 / 유수는 옛데하야 주야에 굶디 아니노고(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칠 줄을 모르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는 자연의 불변성을 본받아 끊임없는 학문 수양을 다짐하고 있다.
- 설의법: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

★ (가) 작품 해설: 황진이, <청산은 내 뜻이오~>

- 해제: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자연물에 비유하며 형상화하고 있는 조선 중기의 시조이다. 변하지 않는 청산의 속성과 쉽게 변하는 녹수를 대조하며, 변하는 존재인 임과 달리 변치 않는 화자의 사랑과 지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장에서는 임도 나를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 구성
- 초장: 변함없는 '나'의 마음과 움직이는 임의 마음
- 중장: 임은 변해도 변치 않는 '나'의 마음
- 종장: 임도 '나'를 그리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 [현대어 풀이]

푸른 산은 나의 뜻이요, 푸른 시냇물은 님의 정이니
푸른 시냇물은 흘러흘러 가지만 푸른 산은 (녹수처럼) 변하겠는가
푸른 시냇물도 푸른 산을 못 잊어(잊지 못하여)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 작품 해설: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해제: 퇴계 이황이 관직에서 물러나 도산 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때를 만나고 사물에 접하여 일어나는 감흥을 읊은 전6곡[言志]과 학문과 수양의 실재를 표현한 후6곡[言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강호 자연에서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주제: 학문 수양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
- [현대어 풀이]

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칠 줄을 모르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오래도록 높고 푸르게 살아가리라.

문 6. 다음 글의 중심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환가치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이며, 사용가치는 어떤 상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이다. 전자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면, 후자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섞여 있는데, 교환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백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공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등의 댓글들을 보고서 애초에 관심이 없던 이 공연의 티켓을 샀다. 그에게 그 공연의 사용가치는 처음에는 없었으나 많은 댓글로 인해 사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공연에서 조금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어떤 상품의 사용가치가 결정될 때, 그 상품은 '나'에게 쓸모 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

- ①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큰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 ②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 ③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 ④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주제

첫째 문단은 상품에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섞여 있고 교환가치가 높더라도 사용가치가 없다면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둘째 문단에서 댓글로 인해 사용가치를 잘못 판단한 사례를 제시하며,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의 중심 내용으로는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큰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상품에 두 가치가 섞여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건강한 소비를 위해 상품의 사용가치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주장을 제시하기 위한 전체이다.
- ③ 마지막 문단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어떤 상품의 사용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문 7. ㉠~㉣ 중 어색한 곳을 찾아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서학으로 불린 천주학은 '학(學)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 종교적인 관점에서보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당시의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서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선 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계에는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도 있어서 서학이 ㉢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 지양했다.

- ① ㉠: '학문적인 관점에서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로 수정한다.
- ② ㉡: '주장하였는데'로 수정한다.
- ③ ㉢: '유일한 대안이였다'로 수정한다.
- ④ ㉣: '지양했다'로 수정한다.

★ 정답: ④ - 독해(작문) - 고쳐쓰기

지문에 따르면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은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은 수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수용하다'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지양하다'는 '어떤 목표로 뜻이 풀리어 향하다.'의 뜻이므로 '수용하다'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의 뜻을 지닌 '지양하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천주학의 '학(學)'이 '학문'을 의미하니 천주학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보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인 관점에서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서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닌 분석의 대상이었으므로,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이라 할지라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주장하였는데'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계에는 서학 외에도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학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으므로 '유일한 대안이였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 8.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는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이 과정에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글쓰기에서 계획하기는 글쓰기의 목적 수립, 주제 선정, 예상 독자 분석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때문이다.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사용한다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한다.

- ① 계획하기 과정이 글쓰기 전체 과정의 첫 단계이기
- ② 글에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하기
- ③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 ④ 독자의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글의 목적과 주제가 결정되기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지문은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를 대조하며 능숙한 필자는 예상 독자 분석을 포함한 '계획하기' 단계에 오랜 공을 들인다고 하였다. 빈칸 뒤에서는 독자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글쓰기는 필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라며 예상 독자 분석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들어가야 하는 빈칸에는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오답 해설:

- ① 계획하기 과정이 글쓰기 과정의 첫 단계라고 서술한 적 없으며, 빈칸은 예상 독자 분석에 관한 것이다.
- ② 지문은 필자가 독자의 수준을 기준으로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④ 독자의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글의 목적과 주제가 결정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문 9. 다음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짝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없는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 기형도, 「빈집」 -

- ① 대상들을 호명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빈집'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
- ③ 영탄형 어조를 활용해 이별에 따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글 쓰는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현대 운문 내용 이해

사랑을 잃은 화자는 글 쓰는 행위를 통해 사랑했던 대상들과의 이별을 고한 뒤,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글 쓰는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추억이 담긴 대상들(밤, 겨울 안개, 촛불, 흰 종이, 눈물, 열망)을 호명하며, 이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사랑을 잃은 화자는 장님처럼 문을 잠그고 '자신의 가없는 사랑(가없는 내 사랑)'을 '빈집'에 가두었다. 이를 통해 '빈집'은 사랑을 잃은 절망의 공간이자, 사랑을 잃은 화자의 공허한 내면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1연과 3연의 감탄형 어미 '-네'와 2연의 돈호법(부름), 열거법, 반복법, 도치법을 통한 영탄적 어조를 활용해 이별에 따른 화자의 상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 작품 해설: 기형도, <빈집>

• 해제: 1989년 발간된 유교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에 수록된 작품이다. 사랑을 잃은 화자는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진정 사랑했던 것들과의 작별 의식을 치르고 있다. 화자는 추억이 담긴 소재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열망했던 모든 것들을 억지로 잊어야 하는 절망감을 절절히 담아내고 있다. 그 누구를,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랑했지만 이별 후 다 사라져 버린 공허한 내면을 비유한 '빈집'은 사랑을 잃은 화자의 진한 허전함을 느끼게 한다.

- 주제: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절망감
- 구성
- 1연: 사랑을 잃고 글을 쓰는 화자
- 2연: 과거의 대상들을 호명하며 사랑을 추억하는 화자
- 3연: 사랑의 추억과 열망을 상실한 화자의 절망감

문 1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드시 갖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대 오른 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잇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가※에 빛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 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 산부인관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 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

※ 해가(奚暇): 어느 겨를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 위치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갈등 원인을 해명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현대 산문 형식 이해

서술자인 '나'는 작품 속에 등장하여 다른 등장인물인 '그(권 선생)'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제시된 지문의 서두에서 '나'는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그'의 행동을 진술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는 '그'와의 대화나 그의 표정 등을 통해 그의 심리를 추측할 뿐, 전지적 위치에서 전달한 것은 아니다.
- 전지적: 사물과 현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 ③ 서술자인 '나'는 갈등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이며, 유년 시절을 회상하거나 갈등 원인을 해명한 적이 없다.
- ④ 서술자인 '나'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가에 빛을 갚을 것인가' 등을 통해 서술자의 주관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작품 해설: 윤홍길,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해제: 윤홍길의 작품은 어린 시절 625 전쟁의 경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작품과 현실 사회의 모순을 풍자, 고발한 작품으로 구분되는데, 이 작품은 후자에 속한다. 작품의 배경인 1970년대는 산업화, 근대화 시대로 불릴 정도로 다방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그 여파로 비인간적, 비윤리적 현상도 나타났고, 이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 작품의 주인공 권 씨는 바로 이런 인간의 전형이다. 오로지 지식인이라는 자존심으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출지에 전과자가 되어 버린 권 씨야말로 시대적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반성적 태도이다. 초등학교 선생인 '나'는 권 씨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연민의 마음만을 간직하는 소극적 지식인이다. 작가는 '나'를 통해 시대의 비극적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 삶
- 구성
 - 발단: 권 씨 가족이 '나'의 집 문간방에 세를 얻어 들어옴.
 - 전개: 생활 능력이 부족한 전과자이지만, 구두에 대한 권 씨의 정성이 지극함.
 - 위기: 해산에 필요한 병원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청을 거절하지만, '나'는 결국 권 씨 모르게 병원비를 냄.
 - 절정: 권 씨가 '나'의 집에 강도로 들어왔다가, 자존심만 상한 채 나감.
 - 결말: 권 씨가 아홉 켈레의 구두만 남기고 사라짐.

[참고]

- 시점: 소설의 특정 위치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의 시각을 말한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위치와 시각에서 서술하느냐에 따라 분위기와 의미가 달라진다.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의 위치	주관적	객관적
작품 속(등장인물)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 시점의 유형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의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으로 친근함과 신뢰성을 준다.
 - ②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의 주변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으로, 서술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된다. 관찰자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 ③ 전지적 작가 시점: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와 사건 진행에 관여하면서 서술하는 시점이다.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④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일체의 해설이나 평가를 내리고 객관적인 태도로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시점으로, 극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을 지닌다.

문 11.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지: 최근 국민 건강 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예방되니까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운용: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은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
 재운: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 ① 은지는 첫 번째 발언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운용은 은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 ③ 은지는 두 번째 발언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재운은 은지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 정답: ② - 독해(화법) - 말하기 내용

운용은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은지의 주장에 대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물었을 뿐 반대 의사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은지는 첫 번째 발언에서 '설탕세'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을 화제로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③ 은지는 두 번째 발언에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다.
- ④ 재운은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은지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문 12.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 회사는 올해 최고 수익을 창출해서 전성기를 하고 있다.
-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를 집을 하려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 그들 사이에 이 심해서 중재자가 필요하다.
- 제가 부족하니 앞으로 많은 을 부탁드립니다.

- ① ㉠: 구가(謳歌)
- ② ㉡: 매수(買受)
- ③ ㉢: 알력(軋轢)
- ④ ㉣: 편달(鞭撻)

★ 정답: ② - 어휘한자 -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

그는 자기 명의를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므로 ㉡에는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의미하는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의 매수는 '買售'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매수(買售): 물건을 팔고 사는 일. = 매매(賣買)
 · 이번 달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매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買 살 매, 售 팔 수

매수(買受): 물건을 사서 넘겨받음.

·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경관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하다 싶은 곳이 있으면 한국인들로부터 싼값으로 땅을 매수하여, 한국인 마을까지 침식해 들어왔다.<문순태, 타고르는 강>[매수하다(동사)의 예문]

買 살 매, 受 받을 수

★ 오답 해설:

- ① 우리 회사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에는 '행복한 처지나 기쁜 마음 따위를 거리낌 없이 나타냄. 또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구가(謳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 구가(謳歌): 「1」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칭송하여 노래함.
「비슷한말」 구음(謳吟)
- 「2」 행복한 처지나 기쁜 마음 따위를 거리낌 없이 나타냄. 또는 그런 소리.
· 인생의 신음 소리보다는 인생의 구가가 듣고 싶은 욕망이 더욱 끓어올랐다.
《이태준, 화관》
· 행복의 송가를 높이 외는 이나 성공의 구가를 길게 부르짖는 사람이나 이 시간이란 시내에서 뱃놀이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나도향, 십집 원 오 십 전》
謳 노래할 구, 歌 노래 가
- ③ 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심하다는 의미이므로 ㉡에는 '수레바퀴가 빠격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 '알력(軋轢)'이 들어가야 한다.
- ㉡ 알력(軋轢): 수레바퀴가 빠격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알력이 심하다.
· 파벌 간의 알력이 풀릴 날이 없다.
· 지주와 작인들과의 알력이란 농경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늘 있어 온 유물 아닙니까.《김원일, 불의 제전》
軋 빠격거릴 알, 轢 수레에 질 력
- ④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달라는 의미이므로 ㉢에는 '경계하고 격려함.'을 의미하는 '편달(鞭撻)'이 들어가야 한다.
- ㉢ 편달(鞭撻): 「1」 채찍으로 때림.
「2」 중아리나 불기를 친. = 편복
「비슷한말」 복달(扑撻)
- 「3」 경계하고 격려함.
·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鞭 채찍 편, 撻 매질할 달

문 13.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이 일은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다.
- ② 그와 나는 전부터 알음이 있던 사이였다.
- ③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대문이 저절로 닫혔다.
- ④ 경기장에는 권잡아선 천 명이 넘게 온 듯하다.

★ 정답: ④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혼동 어휘

"경기장에 '겉으로 보기에 대략' 천 명이 넘게 온 듯하다."의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맥에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의 의미인 '겉잡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겉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의 뜻이다.

★ 오답 해설:

① '부치다'는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로 제시된 문맥에 적절하게 쓰였다. 이를 '붙이다'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붙이다'는 '우표를 붙이다', '책상에 책을 붙이다', '홍정을 붙이다' 등의 상황에 쓰인다.

② 그와 나는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맥에는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을 의미하는 '알음'을 써야 한다. 이를 '아름'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아름'은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돌레.'를 의미한다.

③ 대문이 도로 제자리로 가 막혔다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문맥에는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가 도로 제자리로 가 막히다'의 의미인 '닫히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닫지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닫지다'는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꼭꼭 또는 세계 닫다.'의 의미로, '닫지다'를 쓰는 상황에서는 문장에 문을 닫는 주체가 필요하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대문이 저절로 닫힌' 경우이므로 '닫지다'를 쓸 수 없다.

문 14. ㉠~㉢의 한자 표기로 올바른 것은?

- 복지부 ㉠ 장관은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박 주무관은 사유지의 국유지 편입으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를 ㉡ 보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김 주무관은 이 팀장에게 부서 운영비와 관련된 ㉢ 결재를 올렸다.

	㉠	㉡	㉢
①	長官	補償	決裁
②	將官	報償	決裁
③	長官	報償	決濟
④	將官	補償	決濟

★ 정답: ① - 어휘한자 - 한자어 표기 + 동음이의어

㉠의 '장관'은 '국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행정 각부의 우두머리.'이므로 '長官'이라고 적어야 한다. '將官'은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의 '보상'은 피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므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을 때 쓰는 '補償'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報償'은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것을 갚을 때 쓰는 단어이다.

㉢의 '결재'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한다는 의미이므로 '決裁'를 사용하여야 한다. '決濟'는 '일을 처리하여 끝을 낸.' 또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뜻한다.

㉠ 장관(長官)
「1」 『법률』 국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행정 각부의 우두머리.
· 행정 안전부 장관.
「2」 예전에, 한 관아의 으뜸 벼슬을 이르던 말.
長 길 장, 官 벼슬 관
㉡ 보상(補償)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 피해 보상.
「2」 『법률』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3」 『심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 대상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 결재 서류.
· 결재가 나다.
· 결재를 받다.
決 결정한 결, 裁 마를 재

★ 오답 해설:

㉠ 장관(將官)
「1」 『군사』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 장수
「2」 『군사』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장군
「3」 『군사』 대장, 부장(副將), 참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4」 『군사』 조선 말기에, 각 군영에 속한 종구품 초관(哨官) 이상의 군직.
將 장수 장, 官 벼슬 관
㉡ 보상(報償)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 빌린 돈의 보상이 어렵게 되었다.
· 그는 보상을 약속하고 그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갔다.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 노고에 대해 보상을 받다.
· 그는 사건을 목인하는 보상으로 거액을 받았다.
·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성공이 그동안 겪은 고생에 대한 보상이었다.
·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3」 『심리』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동물에게 주는 물질이나 칭찬. ≒ 보수

報 값을 보, 償 값을 상

㉠ 결제(決済)

「1」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2」 『경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 결제 자금.

· 어음의 결제.

決 결정할 결, 濟 건널 제

문 15.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복수(複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種)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單數)’이기도 하다. 즉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고유한 인격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원적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에서는 어떠한 획일화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 ①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 ②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포용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 ③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는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
- ④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면 사회의 다원성이 파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가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하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지문에 따르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으며,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지문을 통해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어떠한 획일화도 시도해서는 안 되고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지문에 따르면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은 ‘유일무이성’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마지막 부분을 통해 개인의 단수성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다원성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16.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우 치라 소리 맞춰, 넓은 골에 벼락치듯 후리쳐 막 붙이니, 춘향이 정신이 아득하여, “애고 이것이 웬일인가?” 일자(一字)로 운을 달아 우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 일정지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 하겠더니 일신난쳐 이 몸인들 일각인들 변하리까? 일월 같은 맑은 절개 이리 힘들게 말으시오.”

“매우 치라.” “꽤 때리오.” 또 하나 막 부치니, “애고.” 이자(二字)로 우는구나. “이부불경 이내 마음 이군불사와 무엇이 다르리까? 이 몸이 죽더라도 이도령은 못 잊겠소. 이 몸이 이러한들 이 소식을 누가 전할까? 이왕 이리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죽어 주오.”

“매우 치라.” “꽤 때리오.” 또 하나 막 부치니, “애고.” 삼자(三字)로 우는구나. “삼청동 도련님과 삼생연분 맺었는데 삼강을 버리라 하소? 삼척동자 아는 일을 이내 몸이 조각조각 찢겨져도 삼중지도 중한 법을 삼생에 버리리까? 삼월삼일 제비같이 훨훨 날아 삼십삼천 올라가서 삼태성께 하소연할까? 애고애고 서러운지고.”

- 『춘향전』에서 -

- ① 동일한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숫자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④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산문 내용 + 형식 이해

등장인물 간의 대화는 찾을 수 있으나 춘향이 매를 맞으며 서러워하고 있으므로 그녀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춘향은 대사를 통해 이도령에 대한 굳은 절개를 드러내고 매를 맞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는 ‘일’, 둘째 문단에서는 ‘이’, 셋째 문단에서는 ‘삼’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숫자(일, 이, 삼)를 활용하여 이도령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있는 춘향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춘향의 대사인 ‘일편단심 춘향이 ~ 힘들게 말으시오’, ‘이부불경 이내 마음 ~ 이 자리에서 죽어 주오’, ‘삼청동 도련님과 ~ 삼태성께 하소연할까’에서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열(烈)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춘향은 이를 활용하여 이도령에 대한 굳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 작품 해설: 작자 미상, <춘향전>

•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게 소설 중 하나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조선 시대에 존시했던 유교 이념 중 하나인 열(烈)이 주인공인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당대 민중들이 지녔던 사회적 염원이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탐관오리인 변학도에 대한 징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은 19세기에 크게 유행하였고 현재까지도 현대시,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재창작되고 있다.

•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전체 줄거리: 속중 대왕 즉위 초, 전라도 남원에 퇴기 월매와 성 참판은 늦은 나이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한 선녀가 청학을 타고 오는 꿈을 꾸 뒤, 춘향을 낚게 된다. 효행이 지극하고 예의와 정절을 일삼던 춘향은 어느 봄날,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하지만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하여 한양으로 가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다. 이몽룡을 그리워하던 춘향은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그 결과 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 한편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그리고 변학도의 생일 잔치날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사출도하여 부사를 파직 한 뒤 춘향을 구해 낸다. 남원의 공무를 다한 이몽룡은 춘향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서 백년해로한다.

문 17.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소설의 유통 방식은 '구연에 의한 유통'과 '문헌에 의한 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구연에 의한 유통은 구연자가 소설을 사람들에게 읽어 주는 방식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 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연자는 '전기수'로 불렸으며, 소설 구연을 통해 돈을 벌던 전문적 직업인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 유통 범위를 넓히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문헌에 의한 유통은 차람, 구매, 상업적 대여로 나눌 수 있다.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구매는 서적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책을 사는 것인데, 책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소설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상업적 대여는 세책가에 돈을 지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소설을 빌려 보는 것이다. 세책가에서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빌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세책가가 성행하게 되었다.

- ①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연하였다.
- ② 차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빌려 보는 방식이다.
- ③ 문헌에 의한 유통은 구연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었다.
- ④ 조선 후기에 세책가가 성행한 원인은 소설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세책가에서 빌리는 비용이 적다는 데 있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둘째 문단에 따르면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전기수'는 '소설 구연을 통해 돈을 벌던 전문적 직업인'이었는데, 이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 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설을 구연하였다.'
- ③ 첫째 문단에 따르면 '이 방식', 즉 구연에 의한 유통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았다.
- ④ 둘째 문단에 따르면 '세책가에서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빌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세책가가 성행하게 되었다.

문 18.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의 체제로 되어 있다. 이 중 열전은 전체 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수록된 인물은 86명으로, 신라인이 가장 많고, 백제인이 가장 적다. 수록 인물의 배치에는 원칙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명장, 명신, 학자 등을 수록했고, 다음으로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기릴 만한 사람을 실었다.

반신(叛臣)의 경우 열전의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을 수록한 까닭은 왕을 죽인 부정적 행적을 드러내어 반면교사로 삼는 데에 있었으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가령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반신이지만,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 신라 정통론에 기반해 있으며,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시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 ① 『삼국사기』 열전에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었다는 점은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②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는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 ③ 『삼국사기』 열전에는 기릴 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수록되지 않았다.
- ④ 『삼국사기』의 체제 중에서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한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 발문

둘째 문단에 따르면 열전의 끝부분에 배치된 '반신'과 관련한 내용이 제시되는데, 그 내용에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반신이지만,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어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열전에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둘째 문단에 따르면 삼국사기는 '신라 정통론에 기반해'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평가받으므로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첫째 문단에 따르면 열전 수록 인물의 배치를 알 수 있는데, 명장, 명신, 학자 등의 수록 이후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기릴 만한 사람'을 실었다.
- ④ 첫째 문단에 따르면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본기가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에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아, 학습부진아를 가려내고자 하였다. 이에 기초 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1905년 최초의 IQ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오랫동안 IQ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좋지 않고 학습에도 부진한 사람으로 판단했다. 물론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읽기나 계산 등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IQ 검사가 기초 학습에 필요한 최소 능력인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 등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학습의 기초 능력을 측정하는 IQ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 ① 최초의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해 시행되었다.
- ② IQ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
- ③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 ④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첫째 문단에 따르면 최초의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아, 학습부진아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오답 해설:

② 첫째 문단에 따르면 IQ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 따라서 IQ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에 따르면 IQ 검사는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Q가 높더라도 전체 지능이 높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④ 둘째 문단에 따르면 IQ 검사는 '기초 학습에 필요한 최소 능력인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읽기나 계산 등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여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 데 학습해야 할 글자가 적지만, 한자는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의문자여서 한문을 읽는 데 익혀야 할 글자 수가 훨씬 많다.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이 있다. 한글에서는 동음이의어, 즉 형태와 음이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한글로 '사고'라고만 쓰면 '뜻밖'에 발생한 사건인지 '생각하고 궁리함'인지 구별할 수 없다. 한자로 전자는 '事故', 후자는 '思考'로 표기한다. 그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다른 문장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해 혼란을 야기한다. 가령 '愛人'은 문맥에 따라 '愛'가 '人'을 수식하는 관형어일 때도, '人'을 목적으로 삼는 서술어일 때도 있는 것이다.

- ①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성분이 복잡하다.
- ② '淨水'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淨'은 '水'를 수식한다.
- ③ '愛人'에서 '愛'의 문장성분이 바뀌더라도 '愛'는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 ④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지 '의로운 지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지문에 따르면 한자의 경우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문장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문이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성분 자체가 복잡하다는 내용은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추가) 지문의 첫 문장인 '한글은 ~ 표음문자여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 데 ~에서 '한글'과 '한국어 문장'을 차별적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문자로서의 '한자'와 문장으로서의 '한문'이 같은 개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② 지문에 따르면 '愛人'에서 '愛'는 '人'을 수식하는 관형어일 때도 있고 '人'을 목적으로 삼는 서술어일 때도 있다. 따라서 '淨水'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로 쓰였다면 '淨'은 '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만약 '淨'가 서술어로 쓰였다면 '물을 깨끗하게 하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③ 지문에 따르면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다른 문장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愛人'에서 '愛'의 문장성분이 바뀌더라도, 뜻이 전혀 다른 동음이의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지문의 '사고'의 예시와 같이, '한글에서는 동음이의어, 즉 형태와 음이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동음이의어로, '의사'라는 글자만으로는 의미를 구별할 수 없다.